



전주여고 학생들은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애절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아픈 역사 잊지 않아야 새 역사 열려”



6월 20일 전주여고에서 열린 증언회에 참석한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

나눔의 집 할머니들 '전국 고등학교 순회 증언회' 현장

교과서에 기록된 '잔혹한 역사' 생생한 증언에 탄식 쏟아져 기억날까 질문도 조심...“평화로운 나라 만들어 달라” 당부

뚫한 눈으로 바라보는 저 학생들과 또래였다. 깊은 한숨을 타고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됐다. “난 1927년 부산 보수동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의 둘째였는데,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5살 무렵에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우동집 식모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다시 출신의 술집으로 옮겨져 심부름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군인한테 붙잡혔어요.”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뒤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들이 산에 버리고 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할머니는 2000년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중국 연길에서 40여 년을 생활했다. 때문에 할머니의 우리말은 서툴렀고, 조선족말과 중국말이 섞여 억양은 들쭉날쭉했다. 학생들이 좀 더 귀를 쫓아주었다. “하얗게 트러와 기차를 타고 갔는데, 난 거기 가 어디지도 몰랐어요. 수송소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비행장 뒤는 일도 했어요. 근데 내가 힘도 없고 자주 집에 보내달라고 항의하자 연길 서시장 위안소로 보내버렸어요. 나 말고도 여자에 열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위안부 생활이 시작된 거지.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탈출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번번이 붙잡혀서 엄청 맞았어요.

(소매를 걷어 보이며) 팔목에 난 상처도 그때 일본군이 내리친 칼을 팔로 막아서 그래.” “어머, 이뻐!” 여학생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자 할머니는 양팔을 벗고 발가락을 보여준다. “이 상처도 다시 도망 못 하게 한다고 발가락을 칼로 찔러서 생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 가 바로 눈앞에 있다.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왜 일본은 부정하는 것일까?

할머니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학생들 사이에 선 서명 용지가 전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 전해질 서명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 학생이 묻는다.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안 하고 미국 국회에서 결의안을 만드는 거지?” 그 마음을 아는지 할머니가 대답한다. “일본군이 패전 후 우리를 버리고 가서 난 중국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도 했는데 임신은 할 수가 없었지. 1999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들이 이미 사망신고를 했거든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죽고, 갈 데도 없었는데 다

행히 나눔의집에 살게 됐어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놀랐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증언회도 열어주고 문제 해결하라는 법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거짓말’ 같은 증언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의 지난 생애와 아픔이 침묵 속에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듯 했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문답 시간. 처음엔 할머니의 옛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못내 미안해 질문을 하기가 머뭇거리었다. 하지만 한두 명의 학생이 질문을 시작하자 불꽃 터지듯 궁금증이 쏟아졌다.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이 되십니까?” “전국에 한 100여 분 있지요.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어. 살아 있는 사람도 80, 90살이 넘었지. 일본은 우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증언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얼굴 내놓고 다니기 부끄럽지.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죽으면 누가 이 얘기를 하고, 또 누가 믿어주겠어요.” 2시간 동안 진행된 증언회가 끝나고, 전주여고에서 모금한 140여 만 원을 학생회장 조영(19)양이 할머니에게 전달했다. 손녀딸 같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마지막 당부를 한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부모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전주/글=여수영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전국 학생 서명 운동 펼쳐는 기예지양



“학생들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고 이야기 듣는 기회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 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동아리 시나브로의 회장을 맡고 있는 기예지(19·사진)양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전국 8개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증언회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봉사활동 하며 관심 갖게 돼 수요집회도 함께 참가해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민사고에서 열린 할머니들의 증언회와 나눔의집 봉사활동을 통해서다. 할머니들의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의 심각성을 느낀 몇몇 학생들이 모여 봉사동아리 시나브로를 결성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이번 전국 고등학교 순회 증언회와 전시회, 서명운동이다.

“증언을 들으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짓는 친구들을 보며 앞으로 더 열심히 위안부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는 기양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도 참가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006 대한민국 여성수장대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마그토린 기념품&패션 선상(스포츠투 서울)
 뛰어난 유행성 및 상품성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패러이트 자기방을 첨가하고
 음이온이 생성되는 토포마린 실리코네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포집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로고 혹은 이니셜 색인 가능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여)-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www.magtorin.com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인경)